

전남 사랑의열매 '123억 모금' 희망나눔캠페인 폐막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사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 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총 123억300만여 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년도 모금액 대비 116.1%에 달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복지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노동일 회장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개 기관과 합동점검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서생원)은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 활동 예방과 청소년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담양군,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편의점 등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매금지 스티커와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유해물품 청소년 판매금지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김태규 교수 첨단 인재 양성 교육부장관상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김태규(사진)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최근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지능형로봇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2021년 한양대 ERICA,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영진전문대, 조선대, 한국공대 등 7개 대학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시작했다. 김 교수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융합학과인 '지능형로봇학과'를 신설, 수준별 마이크로 모듈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능형로봇분야의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동서그린과 협약 체결



전남바이오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센터장 정중국)가 전남의 친환경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미생물 활용 연구사업 및 현장 실용화를 위해 지난 2일 (주)동서그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센터에서는 농축산업의 작물 연작장애, 시설 재배지의 염류 집적,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등의 농축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주)동서그린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해 자동화 설비 개발 및 보급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청렴·안전 결의대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최근 유역본부 내 전 부서장이 참여한 '2024년 영·섬유역본부 청렴·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물 종합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청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영·섬유역본부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강대 노재성 교수 광주시체육회 이사 선임



동강대학교 노재성(사진) 스포츠재활 트레이닝과 교수는 최근 열린 광주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로 임명됐다. 노 교수는 피트니스 분야 특성화 학과인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퍼스널트레이너(PT 전문가), 재활운동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또 한국대학비디오피트니스연맹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노 교수는 헬스 분야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광주시의회의장과 북구회의장장, (사)세계에슬교류총연합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지역 치안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TV 유치원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10 TV쇼 진품명품(재)	0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다국인사이트 짜장면 랩소디 선공개(재)	3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 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투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 MBC 뉴스	00 캐리와 친구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솔로동창회 환연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도망쳐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통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다큐인사이트 짜장면 랩소디 선공개 45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키링(재)	55 스포츠 매거진	50 도시락 스페셜
12	55 KBS결찰 다큐멘터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3 스페셜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미스터리야
07:15 빅 블루
07:30 출동! 슈퍼월스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8:00 당동명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뽀뽀뽀 뽀로로
08:50 다이노스터
09:2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당동명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마사와 곰
17:20 뽀뽀뽀의 빅포털리 쇼츠
17:25 미스터리야

17:40 최고대 호기심딱지
17:50 한글용사 아이야(재)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브와 블랙캣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예술가의 VOICE
20:00 탑골스타 개칭이
20:40 세계테마기행
<사람이 좋아, 캄보디아
-즐거움 나의 집, 몬돌키리>
21:30 한국기행
<추위, 오지네 1부 오지해 행복하리라>
21:50 EBS 다큐프라임
22:50 인간과 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5일(음 12월 26일 己亥) ☎ 010-9790-8237

36년생 충동적인 판단하에서 기인한다면 후회가 따른다. 48년생 분수와 현태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 60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 가니 난감해지리라. 72년생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84년생 뜬말이 보여준 것이 허할 것이다. 96년생 골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00, 57

37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성취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49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1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73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85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다. 97년생 너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1, 77

38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가지 않는 것이 낫다. 50년생 재판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62년생 바로 코앞에 있는 이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74년생 중국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불착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길 것이다. 98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2, 95

39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향이 많은 이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51년생 활용만 잘한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63년생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버려도 된다. 75년생 잡으로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과 관련지어 주리라. 87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다면 욕심내어서는 아니 된다. 99년생 앞당겨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 71

40년생 숨은 뜻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하니라. 52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변성하는 운로이다. 64년생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76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88년생 노력에 비해 대가가 클 수 있다. 00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행운의 숫자 : 24, 89

41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찮을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여라. 53년생 미연에 조치해 둔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65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77년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89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01년생 이면까지 고려하자. 행운의 숫자 : 38, 50

42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54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러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66년생 낮에 난 도깨비가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도 있다. 78년생 뜻밖의 행적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 90년생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 02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87

43년생 기본적인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55년생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할 수 있겠다. 67년생 평상시에 아는 바대로만 행하면 그만이다. 79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니라. 91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03년생 조바심을 버려야만 성사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행운의 숫자 : 35, 92

44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라. 56년생 잘 살펴보고 모색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리라. 68년생 어설피게 하느니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80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92년생 경계심을 버리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 04년생 발전의 물꼬를 트는 길사가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97

45년생 노력한다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57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69년생 정세 파악에 능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93년생 표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05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97

46년생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58년생 어제보다는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70년생 진퇴양난으로써 고역이 가중되는 형상이다. 82년생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94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자. 06년생 현재의 실적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보람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4, 88

35년생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대응하자. 47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의 차이는 클 것이다. 59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71년생 욕심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3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95년생 안정을 찾는 데는 일정한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65